

고려시대 동남해지역 해양사와 중심 포구의 이동*

- 조선 초기 부산포 개항과 관련하여 -

한 정 훈**

| 목 차 |

- I. 머리말
- II. 동남해지역 해양사 연구의 필요성
- III. 고려시대 동남해지역 해양사 개관
 - 1. 동남해지역의 주요 포구
 - 2. 동남해지역의 해양활동
- IV. 신라~조선 초기 동남해지역 중심 포구의 이동
- V. 맺음말

| 국문초록 |

본고는 조선 태종 7년(1407)에 내이포(乃而浦)와 함께 개항하는 부산포의 역사적 연원을 살펴보고자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이 포함된 ‘동남해 해양사’의 관점에서 고려시대 동남해의 포구와 해양활동을 살펴보았다. 고려시대 동남해 지역은 일본과의 외교와 통상활동의 중심 권역으로, 그 중심지는 남포(南浦)가 있던 김해와 합포(合浦)가 있던 마산지역이었다. 12~13세기 중반에는 객관(客館)과

* 본 논문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 “부산항 개항역사 재조명 국내 심포지엄”(2020년 11월 20일)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목포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 h313100@hanmail.net

동남해도부서(東南海都部署)가 있던 금주(金州)에서 대일 외교·통상 업무를 관할하였다. 13세기 후반의 원간섭기 이후는 왜구 침입의 방어 거점인 합포진변만호부가 있던 회원현(會原縣)이 동남해 수군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신라~조선 초기 동남해지역 중심 포구의 이동 양상을 살펴본다. 신라의 대외 교섭은 울주 태화강변의 율포(栗浦)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조선왕조 개창 이후 태종 7년에는 흥리왜인(興利倭人)을 위해 내이포와 부산포를 개항하였고, 16세기 중엽이 되면 부산포 단일 왜관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신라~조선 초기 동남해지역의 중심 고을과 포구는 울주(율포), 금주(남포), 회원현(합포) 그리고 동래현(부산포)으로, 오늘날의 울산-김해-창원(옛 마산)-부산 순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동남해 해양사의 중심 포구의 이동 속에서 부산포의 개항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동남해 해양사, 금주, 동남해도부서, 합포, 부산포

I. 머리말

부산지역사 연구 성과를 시대별로 정리해 보면, 가장 적은 시대는 단연 고려시대이다.¹⁾ 그것의 주요 원인은 고려시대 부산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 부산지역은 동래현·동평현·기장현의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屬縣)으로 구성되어 신라와 조선시대에 비해 읍격(邑格)이 낮았다.

2007년에는 그동안의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서 특징을 제시한 연구가 나왔다.²⁾ 해당 연구에 따르면, 문헌사적 고찰에서는 ‘부산지역의 지방

1) 1960~1990년 부산지역사 연구현황은 선사 26편, 고대 4편, 고려 3편, 조선 16편, 근대 41편이다(홍연진, 『부산사 연구현황』, 『향도부산』 10, 1993, 239쪽 참고). 이후 1991~2020년의 30년간 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되었지만, 고려시대 연구의 비율은 전체의 5~10% 정도로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이다.

2) 김현라, 『통일신라 고려시대 부산지역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향도부산』 23, 2007.

행정구조', '부산지역의 수취체제', '부산지역의 대외관계', '동래 정씨와 『정과정곡』'을 주요 연구 주제로, 문화재와 관련하여 고고학적 발굴 성과로는 '만덕사지(3층석탑)', '치소성 터와 출토 기와', '덕천동유적', '도자기'를 각각 거론하였다.³⁾ 이러한 선행의 고려시대 부산지역사 연구 성과에서 '부산지역 해양사'와 관련된 것은 '부산지역의 대외관계' 분야일 것이다. 해당 연구는 고려말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부산지역이 부상하였다는 견해를 소개하면서, 부산지역의 토호층은 청자 등의 물산을 매개로 인접한 금주객관(金州客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일 교역에 적극 참여하면서 인근 사찰의 단월(檀越)로 활동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하였다.⁴⁾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20년까지 고려시대 부산지역사 연구로 추가된 성과는 5편에 지나지 않았다. 2010년에 강서구 녹산동 미음마을 일대에서 대규모 청자 가마가 발굴됨에 따라 청자 생산 기술과 출토 청자의 특징에 관한 연구가 2편 나왔다.⁵⁾ 또한 2005년에 동래 고읍성을 발굴함에 따라 동래현 치소(治所)의 공간과 이동, 그리고 치소성의 구조와 축조 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⁶⁾ 이와 함께 동평현·동래현·기장현 치소성터 등에서 출토된 명문 기와를 소개하면서 면리제(面里制) 시행의 가능성을 타진한 연구도 나왔다.⁷⁾ 현재 한국중세사의 연구 환경과

3) 고려시대 연구논문 다섯 편이 다음의 학술지에 수록되었다(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항도부산』 20, 2004).

4) 김현라, 앞의 논문, 163~165쪽. 고려시대 부산지역 토호층의 대일 교역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소개한 것이다(이종봉,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항도부산』 20, 2004a).

5) 최영문, 『고려 후기 낙동강 이동의 삼감청자 연구-부산 울산 양산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41, 2017. 김태은, 『부산 녹산동 고려시대 가마터 출토 청자의 특징과 의의』, 『한국문화연구』 36, 2019.

6) 김광철, 『고려시대 동래현의 치소(治所)와 치소성』, 『韓國中世考古學』 3, 2018. 이동주, 『고려시대 기단석축형 판축토성의 체성부 구조에 대한 검토-부산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58, 2018.

7) 구산우, 『고려시기 면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소개와 분석』, 『한국중세사연구』 30,

부산이 고려왕조의 변방이었음을 고려하면, 근래의 ‘중세 고고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경향에 부응하여 위와 같이 다섯 편의 연구논문이 생산된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관련 연구가 활기를 띠지 못하는 것은 부산지역사 연구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상과 같이 고려시대 부산지역사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조선 초기에 개항한 부산포의 역사적 연원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고려시대사 전공자로서 ‘부산(포)’ 관련 연구에 조금도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동남해지역 해양사’를 제안해 본다. 조선 초기 부산포의 개항을 고려시대 동남해지역 해양사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면서 해당 논의에 참여해 보려 한다.⁸⁾

Ⅱ. 동남해지역 해양사 연구의 필요성

부산포 개항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시대로 소급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범위를 오늘날의 부산 앞바다로 좁혀서 이해하기 보다는 부산을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의 연해 권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 부산지역은 군현지배체제에서 중요한 고을이 아니었고, 이 지역의 포구를 통한 국내·외의 해상 교류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려시대 동남해지역의 포구와 해양활동을 고찰하는 것은 조선 초기 부

2011.

8) 본 논문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 “부산항 개항역사 재조명 국내 심포지엄”(2020년 11월 20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해당 심포지엄이 조선 초기 부산포 개항의 역사성 고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발표 내용도 역사적 배경으로 고려시대 동남해지역 해양사를 주로 다루었음을 미리 밝혀 둔다.

산포의 개항과 발전을 이해하는 데에 유익한 내용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해양사의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면, ‘서남해지역’에 비해 ‘동남해지역’ 해양사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두 방면이 바다에 맞닿아 있는 ‘서남해지역’과 ‘동남해지역’은 해양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권역이었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회보(<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hb>)에서 2000년~2020년 10월까지 생산된 한국 전근대시기 해당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 논저 제목에 ‘서남해’를 부기(附記)한 저서와 논문이 25개 정도인 것에 반해 ‘동남해’를 붙인 성과는 3건에 불과하였다.⁹⁾ 이 중에서 ‘동남해양사’라 명기한 연구논문도 고대시기 해당 지역의 해양 여건과 활동을 살피기보다는 대일(對日) 해양교류에 집중하였다.

한편, 한국해양(문화)사 연구에서 서해·서남해·동해와 함께 ‘동남해’ 권역을 설정하여 살핀 최초의 성과는 2002년 해양수산부에서 출판한 『한국의 해양문화』일 것이다. 전체 여덟 권 중에서 두 권에 걸쳐 한국 ‘동남해역’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었다.¹⁰⁾ 해당 연구 성과는 한반도를 둘러싼 전체 해역을 망라한 최초의 연구라는 의미가 있지만, ‘동남해지역 해양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는 해역의 구분 문제이다. 해당 연구 성과에서 총 5개의 권역(서남해·서해·동남해·동해·제주해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서해·동해와 같이 남해해역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서남해역과 동남해역으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동남해역’에 광역의 행정단위인 경상남도(부산·

9) 논문 제목에 ‘동남해’를 표기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선석열, 『한국 고대 동남해양사의 연구동향과 그 과제』, 『석당논총』 66, 2016. 김현철, 『7세기 신라 동남해권 성곽의 성격』, 『역사와 세계』 53, 2018. 주은순, 『고대말 조선사람들의 동남해 항로를 통한 일본열도에로의 진출과 그 의의』, 『력사과학』 2018-4, 2018).

10) 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 2002. 이 시리즈는 서남해역 두 권, 서해해역 두 권, 동남해역 두 권, 동해해역 한 권, 제주해역 한 권 총 여덟 권으로 구성되었다.

울산 포함)와 경상북도 전역을 포함시키고자 의도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동남해역에는 서쪽 끝의 경남 하동군에서 북쪽의 경북 울진군까지의 해역이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생각해 봐도 하동과 울진의 연해지역과 지역민이 바다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의 공감대는 거의 없을 것이다.

둘째, 연구 내용이 고대사와 조선시대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고려시대 해양문화사를 거의 신지 않았다. 신라 가야나 조선왕조 보다 활발한 해양활동을 펼쳤던 고려시대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지 않은 채 동남해역의 역사와 문화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2002년에 출판한 해당 연구서가 초기 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동남해’의 권역 설정과 그곳에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논의가 없는 점을 생각하면 ‘동남해지역 해양사’ 논의의 필요성은 충분할 것이다.

오늘날 ‘동남해지역 해양사’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서남해역 보다 해양활동이 활발하지 않았고, 중앙 정부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서남해지역은 지정학적(地政學的) 입지로 인해 역사적으로 해양활동이 활발하였다. 바다 건너의 동아시아 중심부인 중국과 마주 보면서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인해 해안선이 길게 늘어져 있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섬들이 바다를 수놓고 있어 동남해지역 보다 해양 영토가 넓었다. 또한 중세 봉건왕조의 도읍인 개경(開京)과 한양(漢陽)이 서해 항로를 따라 도달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한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인문지리 환경을 바탕으로 해양활동을 주도했던 ‘서남해지역’에서는 연근해 항해 뿐 아니라 중국·일본과의 해양 교류활동 등 다양한 모습이 확인된다. 고대 시기는 초기 고대국가의 ‘대형 웅관고분’ 문화와 장보고의 해상왕국 ‘청해진’ 건설 그리고 선종(禪宗) 불교와 차

(茶) 문화의 수입 등이 주요한 관심 주제이다. 후삼국시기의 ‘해상 호족’에 이어 고려시대 3개의 조창(漕倉)을 중심으로 하는 ‘조운(漕運) 활동’, 강화도·진도·제주도로 이어진 ‘해상왕국 삼별초’, ‘고려청자의 유통’ 그리고 근래에 바다 속에서 건져 올린 ‘해저 유물’ 등은 서남해지역 해양활동의 핵심 주제이다. 이러한 서남해지역 해양사와 해양문화에 관한 연구서 중 일부는 전라남도의 지원 속에서 기획·출판되기도 하였고,¹¹⁾ 관련 연구가 축적되면서 ‘서남해역(연해지역 포함)’이라는 별도의 해양활동 공간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에 비하면 ‘동남해지역 해양사’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남해지역에서 해양활동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것의 중요도가 덜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침체된 분위기는 해당 분야에 대한 무관심과 연구 활동의 부재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와 함께 지적하고 싶은 주요한 이유는 ‘서남해지역’이 단일한 광역 행정단위인 전라남도 관내에 위치하는 데에 반해 ‘동남해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오늘날 동남해지역 혹은 ‘동남권’이라는 말은 광역의 경제 벨트(belt)를 이야기할 때에 부산을 비롯하여 울산과 경남의 창원 더 나아가 진주권역까지를 포괄하는 공간적 범위로 자주 쓰인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라는 별개의 광역 시도로 구성된 동남해 권역을 단일한 지역이나 해역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¹²⁾

그렇다면, 부산을 비롯한 동남해의 지역민들이 공유할 만한 고려시

11)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출판된 주요 연구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전남문화예술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엮음, 『전남 서남해지역의 해상교류와 고대문화』, 해안, 2014. 문안식,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한반도 서남해지역 해양문화』, 해안, 2016. 강봉룡 외 11, 『해양강국 고려와 전남』, 민속원, 2019).

12) 반면에 서남권의 중심 도시인 목포에 있는 목포상공회의소 회원의 지역 범위는 목포시 뿐 아니라 위로는 영광으로부터 함평·무안·영암·해남을 거쳐 남해안의 강진·장흥·그리고 신안·진도·완도에까지 전남도내에 걸쳐 있다. 목포상공회의소 회원구성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okpocci.korcham.net/front/contents/sub.do?contId=1250&menuId=2461>)를 참고하였다.

대의 해양활동은 무엇이 있을까?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 성과를 참고하면, 금주객관을 통해 전개된 대일 교류활동,¹³⁾ 동남해도부서(東南海都部署)에서 수행한 지방행정 및 대일(對日) 교류활동,¹⁴⁾ 합포(合浦)를 중심으로 펼친 일본 정벌·왜구 방어 등의 대일(對日) 군사활동¹⁵⁾ 그리고 합포현의 석두창(石頭倉)을 거점으로 한 연근해 해운활동¹⁶⁾ 등을 꼽을 수 있다.¹⁷⁾ 이러한 선행의 연구현황을 보더라도, 고려시대 동남해지역의 해양활동도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해상 교류활동이 주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동남해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한·일 양국의 교류활동에서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고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고려시대 ‘동남해지역’의 해양사에 관해 개관하려 한다. 그런 다음 고려시대 동남해지역 해양사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조선 태종 7년(1407년)에 부산포가 대일 교역의 중심 포구로 지정되었음을 강조할 것이다. 다시 말해 동남해지역 중심 포구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조선 초기 부산포의 개항을 주목하고자 한다.

13) 이종봉, 『高麗時代 對日交流와 釜山』, 『지역과 역사』 15, 2004b.

14) 김남규, 『高麗 都部署考』, 『사충』 11, 1966. 김호중, 『東南海都部署使의 設置와 그 機能-金州本營을 中心으로-』, 『民族文化論叢』 20, 1999.

15) 김광철, 『고려시대 합포 지역사』, 『한국중세사연구』 17, 2004. 이영, 『고려 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 17, 2004. 구산우, 『일본 원정, 왜구 침략과 경상도 지역의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22, 2007. 김원규, 『합포병영성과 마산』, 『伽羅文化』 27, 2015.

16) 이지우, 『傳統時代 馬山地域의 漕運과 漕倉』, 『伽羅文化』 16, 2002. 한정훈, 『고려시대 漕運制와 마산 石頭倉』, 『한국중세사연구』 17, 2004.

17) 이외에도 고려청자의 지역간 교류활동은 많은 관심 속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청자 문화의 선진지역인 전라도 연해 지역과의 교류, 또는 동남해 고을 상호간의 교류 양상에 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Ⅲ. 고려시대 동남해지역 해양사 개관

1. 동남해지역의 주요 포구

이 장에서는 고려시대 동남해지역의 해양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우선 해양활동의 주요 근거지인 포구(浦口)를 조사하여 이후의 관련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남해(지역)의 범위는 가변적이다. 좁게는 울산·부산·창원 정도이고, 조금 넓게 설정하면 동북쪽의 경주 앞바다에서 울산·부산을 거쳐 낙동강 하구에서 창원·고성·통영과 거제도도 둘러싸인 내해(內海)까지를 포함한다.

본고에서 설정한 동남해의 범위는 후자와 비슷한데, 고려시대 문헌 자료에서 보이는 ‘동남해(東南海)’나 ‘동남도(東南道)’의 사례가 참고된다. ‘동남도’는 주로 개경에서 동남 방면의 지역을 가리켜 동남도지휘사·동남도도독사를 파견한 사례에서 확인된다. 원종 15년(1274)에 김방경(金方慶)을 동남도도독사(東南道都督使)로 삼아 합포(合浦)로 보내어 일본 정벌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충렬왕 20년(1294) 4월에는 안향(安珦)을 동남도병마사로 삼아 합포(合浦)로 나아가게 하였다.¹⁸⁾ 또한 ‘동남해’의 용례는 고려시대 해안 방어를 전담한 기관인 ‘동남해(선병)도부서[東南海(船兵)都部署]’가 대표적이다. 본 장 2절에서 상세히 언급하듯이, 경주와 김해에 번갈아 본영(本營)을 두었던 동남해도부서는 ‘동남해’의 해상방위사령부로서 대일(對日) 외교·통상 업무까지 관할하였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동해와 남해에 걸쳐 있던 ‘동남해’ 지역은 연근해와 내륙의 육로를 통해 이동이 용이한 권역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18) 『고려사』 권104, 열전17 김방경; 『고려사』 권31, 충렬왕 20년 4월 11일. 거제도도 파견된 ‘동남해 안무사’의 사례도 있다(『고려사』 권15, 세가 15 인종 6년 10월 1일).

우왕대 왜구 침입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우왕 2년(1376) 12월에 왜구가 합포 앞바다를 통해 상륙하여 합포 군영을 불태운 다음, 양주(梁州; 양산)·울주 및 의창현·회원현·진해현(이상 창원)·함안현·고성현·반성현(진주시 반성면 일대)·동평현(부산진구 일대)·동래현·기장현 등지를 도륙하고 불태웠다.¹⁹⁾ 이상의 몇 가지 관련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 동남해지역을 동해안의 경주에서 남해의 고성·거제도까지로 설정하였다. 해당 지역에 분포하였던 포구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동남해지역의 포구 현황

구분	고려시대	조선 초기	
		주요 포구	기타 포구
경주	-	감(북)포	화암포
울주	①울포	염포, 개운포, 서생포, 방어진, 장생포	부성포, 녹곡포, 임을랑포, 아이포, 유등포, 시길, 유포
	②개운포		
기장현	-	두모포	무지포(도), 가을포, 기포, 이을포, 동백포, 공수포
동래현	-	해운포	석포, 회을포, 거호포, 입포, 남내포
동평현	-	부산포, 대대포	
금주	③남포	취량	주포, 강창포
웅신현	④완포	내이포(=제포)	부곡포, 응포, 덕산포, 양곡포
완포현			
합포현	⑤합포	합포, 마산포	내포
구산현	⑥삼일포	여음포	-
진해현	-	가을포, 도만호	능지두, 마수이, 가토, 시락포, 소달포, 마역포, 거차포
고성현	⑦칠포	견내랑, 가배랑, 번계, 박도 사랑, 당(항)포	시락포, 수월포, 양지포, 마소포, 자화포, 가화포, 소소포, 춘원포, 구허포, 장평포, 쌍봉포, 수대포, 지포, 어례향포
	⑧적전포		
	⑨견내랑		
거제현	⑩송변포	영등포, 옥포, 지세포, 탑곶(탑포), 오이포	사등포, 오비포, 가이포, 하청포, 사외포, 황포, 한다포, 명진포, 산촌포, 오양포

19)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2년 12월.

<표 1>의 내용 중 고려시대의 포구는 『삼국사기』·『고려사』 등의 자료에서 조사한 것이고, 조선 초기의 포구 현황은 조선전기 지리지(『경상도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 등) 내용을 참고하였다. 군현체제와 고을 명칭은 고려시대의 것에 따랐기에, 합포현의 완포향(莞浦鄕)이 승격한 완포현과 웅신현의 성법부곡(省法部曲)이 승격한 구산현도 함께 포함시켰다.²⁰⁾

동남해의 북쪽에 위치한 경주는 동남해 보다 동해에 위치하였다. 하지만 신라시대 울산이 왕경의 외항(外港)이었던 점, 고려시대 경주가 울주·금주·양주 관내의 상급 행정단위인 계수관(界首官)이었던 점 그리고 동남해도부서의 본영이 경주에 자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동남해지역에 포함시켰다. 문헌 자료상에서 고려시대 바닷길을 통해 경주로 출입하거나 동남해도부서의 병선이 출항한 포구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 문종 32년(1078)에 오늘날의 경주시 감포읍 팔조리로 비정되는 팔조음부곡(八助音部曲)에 있던 성곽이 바닷가의 평지에 위치하여 동여진의 침범을 자주 당하였다.²¹⁾ 『동국여지승람』 권21, 경주부 산천조에 전하는 팔조포(八助浦; 동쪽 53리)가 팔조음부곡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조선 태종 3년(1403)에 왜구가 감북포(甘北浦)에 침입하여 전함 3척을 불태웠고, 늦어도 세종대에는 병선과 군사가 배속되었던 감포(甘浦) 만호의 존재가 확인된다.²²⁾ 조선 초기 만호가 있던 감포가 감북포와 동일한 포구인지, 또 고려시대 팔조음부곡에서 유래한 팔조포와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지 않지만,²³⁾ 오늘날의 경주시 감포읍 일대에 고려·조선 초기에 동남

20) 『고려사』 권57, 지리2 경상도 금주 웅신현·합포현.

21) 관련 기사는 『고려사』 권9, 문종 32년 9월에 전한다.

22) 『태종실록』 권6, 태종 3년 10월 9일.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서문. 두 번째 기사에 따르면, 감포 만호에는 병선 6척과 군사 387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23) 필자는 팔조포와 감북포가 감포의 또 다른 명칭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조선 초기 지리지인 『경상도지리지』(예외적으로 『경상도지리지』에는 화암포(禾巖浦)도 함께

해의 바닷길을 통해 경주로 출입하는 포구가 위치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그 아래의 울주에는 신라 때부터 이름난 포구가 확인된다. 울산지역에는 처용설화, 박제상의 도일(渡日), 최근 태화강변의 반구동 유적 등의 내용을 통해 신라 왕경의 외항(外港)에 걸맞은 포구가 다수 분포하였다.²⁴⁾ 또한 고려의 원(元) 간섭시기에 조상 대대로 부유한 상인으로 유명하였던 박구(朴球) 가문도 울산의 포구를 근거지로 삼아 해상 무역을 통해 재화를 모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문헌 자료에서 확인되는 고려시대의 포구는 ①울포(栗浦)와 ②개운포(開雲浦) 정도이다. ①울포는 신라 눌지왕 때에 미사흔을 구하기 위해 박제상이 출항한 항구로 현재 울산만으로 흘러나가는 태화강이 동천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²⁵⁾ 그곳에 인접한 울산 반구동 유적은 고려~조선 초기까지 울산의 중심 항구로 기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⁶⁾ 그러한 울포가 고려 우왕(禡王) 때 왜구의 침략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우왕 3년(1377) 4월에 경상도원수였던 우인열이 울포에서 왜구와 싸워 적장을 참수하고 말 60여 필을 노획하였다.²⁷⁾ 울산만을 거슬러 들어와 울포를 통해 내륙으로

기재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경상도속찬지리지』 경주부에 감포(甘浦)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여타의 포구가 없이 팔조포만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 24) 여러 연구에서 울산의 대외 무역항으로서의 면모를 다루었다. 그 중 주요 성과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김현철 외, 3, 『울산 반구동유적』,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09. 김창석, 「삼국시기 신라 外港의 변천과 그 배경」, 『도서문화』 45, 2015).
- 25) 울포의 위치를 본문과 같이 북구 양정동 울동마을로 염포(鹽浦)에 가까웠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이와 달리 동해안의 북구 정자동의 유포(柳浦)로 보기도 한다(『경상일보』, 2016년 9월 7일자.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809>).
- 26) 김현철, 「울산 반구동유적의 성곽 연구」, 동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김창석, 「대외교류로 본 고대 울산지역」, 『대외교류를 통해 본 울산』, 울산대곡박물관, 2019.
- 27) 『고려사』 권114, 열전27 제신 우인열. 우왕 3년에 왜구를 격퇴한 울포가 울산 울포가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고려사절요』의 다른 연대기 기록에 ‘왜구가 울주 계림을 노략질하였다.’거나 ‘우인열이 울주에 재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다.’ 등의 내용

진입하고자 시도한 왜구를 격퇴한 것으로 이해된다. 처용설화와 관련이 있는 ②개운포의 경우는 14세기 때의 문인인 정포(鄭誦; 字는 仲孚)가 유배시절 명승지를 노래한 울주 팔영(八詠)의 하나로 남긴 『개운포』라는 시문을 통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²⁸⁾

이처럼 신라시대 이래로 울주의 주요 포구로 기능하였던 ①울포와 ②개운포는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초기에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1425년에 편찬한 『경상도지리지』에 울산의 포구로 염포(鹽浦)와 개운포 이외에 서생포·부성포·녹곡포·방어진·장생포가 확인된다. 태종 7년(1407) 기사를 참고하면, 이들 포구 중 염포·개운포·장생포·서생포에는 병선과 군사가 편제되어 있던 만호영(萬戶營)이 설치되었다.²⁹⁾ 태종과 세종 연간에 경상도 병마절제사영이 자리한 울주에 있던 염포·서생포·②개운포 만호영이 동남해지역의 해륙 방어체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상좌도 수군기지 중 한 곳으로, ①울포에 인접한 것으로 알려진 염포는 부산포·내리포에 이어 태종 18년(1418)에 왜관(倭館)이 추가 설치된 포구였다.

동해와 남해 바다가 만나는 기장현과 동래현에도 조선 초기에 두모포·가을포·이을포·무지포와 해운포·회을포·거호포·입포 등 다수의 포구가 확인된다.³⁰⁾ 이 중에서 수군만호영이 설치된 두모포(기장현)와 해운포(동래현)가 여타의 포구 보다 주요한 포구였을 것이다. 그리고 기장·동래 보다 만(灣) 지형이 발달한 동평현에는 경상좌도 수군 도안무처치사가 있던 부산포(釜山浦)와 수군 만호영이 있던 다대포가 위치하였다. 다대포 보다 부산포의 위상이 높았음은 다음의 기사 내용을 통해

(『고려사절요』 권30, 우왕 3년 4월 미상)을 참고하면 틀림없다.

28) 『稼亭集』 卷20, 詞次鄭仲孚蔚州八詠 開雲浦.

29)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7월 27일. 15세기 중반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서문과 『경국대전』 수군 관련 기록을 참고하면, 염포·서생포·개운포에만 만호영이 유지되었다.

30) 『경상도지리지』 서문.

확인할 수 있다. 태종 7년(1407) 7월에 ‘병선의 수도 넉넉지 않고 이전부터 다대포가 긴요하지 않은 곳이었기에 부산포에 있는 도만호(都萬戶)로 하여금 다대포도 겸하여 방어하도록 하였다.’³¹⁾ 부산포에 도만호영이 설치되기 이전의 부산포(富山浦)에서는 태종 2년(1402)에 왜구의 침략으로 천호(千戶) 김남보(金南寶)와 사졸(士卒) 10여 명이 살해당하는³²⁾ 등 왜구의 침략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빈번하였다. 이렇게 왜구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지리적 입지가 양호하였던 부산포는 이후 조선시대 내내 동남해지역을 대표하던 중심 포구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부산포는 고려시대까지 소급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문헌상에서 존재와 그곳을 통한 해운활동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동평현과 마주하는 금주(金州; 김해)의 경우는 <표 1>과 같이 고려시대 포구의 존재(③남포) 뿐 아니라 해양활동도 확인된다. 부산지역과 달리 금주지역에서 해양활동이 활발하였던 이유는 금주가 내륙지역을 관통한 낙동강이 남해로 빠져나가는 길목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지 조건으로 인해 고려시대 금주는 인근의 5개 고을(의안군·함안군·칠원현·합포현·웅신현)을 거느리는 주현(主縣)의 지위를 누렸다. 낙동강 하구에 넓게 펼쳐진 고(古)김해만은 명지도(鳴旨島)나 취도(鷗島) 등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자리하여 조수(潮水)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바닷길로 나아갈 수 있는 포구가 위치하기에 좋은 입지조건이었다. 특히 명지도 동쪽의 취량(鷗梁)으로도 불린 취도 북쪽은 수심이 깊어 배가 정박하여 밤을 지내는 곳이었다.³³⁾ 이 내용을 통해 남해 연안에서 김해지역을 거쳐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는 해양활동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 낙동강 출입의 관문이었던 금주

31) 『경상도지리지』 권14, 태종 7년 7월 27일.

32)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1월 28일.

33) 『동국여지승람』 권32, 김해도호부 산천 취도. 금주와 낙동강의 진입 지점에 위치한 취도의 입지는 『대동여지도』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는 그 역할이 적지 않았다.

특히 금주는 일찍부터 대일 교역의 중심지였다. 희종 2년(1206)에 대마도 사신 명뢰(明賴) 등 40인이 금주 ③남포(南浦)에 와서 전복을 비롯한 여러 물품을 진봉(進奉)하였다.³⁴⁾ 이렇듯 남포는 일본인이 입·출항할 수 있는 포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해상 관문(關門)으로서의 입지는 반대로 고려 말엽에 금주가 왜구의 주요한 약탈 지점으로 전락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우왕 3년(1377) 5월에 왜구는 50척의 배에 나뉘어 타고 김해 ③남포(南浦)에 이른 다음, 뒤이어 바람을 타고 황산강·밀성 등지를 공격하고자 하였지만 박위와 배극렴의 활약으로 저지당하였다.³⁵⁾

고려시대 금주의 속현인 웅신현은 조선시대 웅천현이었다. 웅신현은 마산만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조선초기에는 앞의 <표 1>과 같이 내이포(乃而浦)를 비롯해 몇 개의 포구가 위치하였다. 고려시대 포구로 오늘날의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완포향(莞浦鄉, 진해구 현동)의 ④완포가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려시대에 완포향이 완포현으로 승격하였다. 조선 초기 웅천현의 중심 포구였던 내이포(=薺浦, 진해구 제덕동)는 완포로부터 동남쪽으로 10km 이상 떨어져 있었다. 조선 초기에 경상우도 수군 도안무처치사영이 설치되었던 내이포는 해방(海防)의 요해지(要害地)로 흥리왜선(興利倭船)과 왜객(倭客)의 사선(使船)이 항상 와서 정박하는 포구로 태종 7년에 부산포와 함께 개항하였다.³⁶⁾

한편 원(元)의 간섭 초기에 일본 정벌을 위한 전방 사령부의 성격을 지닌 정동행성(征東行省)이 설치되었던 합포현의 ⑤합포(合浦)를 고려

34) 『平戶記』 卷13, 建永 元年 1月 14日(이종봉, 앞의 논문, 2004b, 103쪽 재인용).

35) 『고려사』 권116, 열전29, 박위 열전; 『고려사절요』 권30, 우왕 3년 5월. 이때의 김해 남포를 치소성 남쪽의 해반천과 조만강이 만나는 김해시 화목동 남포(마을)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주경업 외 3, 『낙동강 물길 따라 역사 따라-역사와 문화 현장 체험-』, 부산광역시, 2010).

36) 이종봉, 『조선전기 薺浦의 왜인과 활동』, 『지역과 역사』 22, 2008.

시대 주요 포구에서 빠뜨릴 수 없다. 고려시대 동남해지역의 세곡을 수집·해운하던 조창(漕倉)인 석두창(石頭倉)이 있던 합포현은 13세기 후반에는 원나라 수군력이 집중되었던 세계적인 군항(軍港)으로 탈바꿈하였다. 이어서 14세기에는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합포진변만호부(合浦鎭邊萬戶府)가,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태조 6년(1397)에 동래현과 함께 합포현에 경상우도 병마첨절제사영이 각각 설치되었다.³⁷⁾ <표 1>과 같이 조선 초기 마산만 일대에는 ⑤합포 뿐 아니라 그로부터 서쪽 5리 떨어진 지점에 마산포(馬山浦)와 칠원현·귀산현의 경계에 여음포(餘音浦) 등의 포구가 위치하였다.³⁸⁾

고려시대 진해현 아래쪽의 구산반도에 있던, 성법부곡이 승격한 구산현(龜山縣)에는 ⑥삼일포(三日浦)의 존재가 확인된다. 공민왕 때 왜구가 삼일포를 노략질하자 경상도도순문사 홍사우가 이들을 격퇴하였다.³⁹⁾ 고려시대의 진해현은 오늘날의 진해지역이 아니라 창원시 진북·진동·진전면의 합포 이서(以西)지역으로, 당시의 포구 명칭은 확인되지 않는다. 진주목의 직할 속현(屬縣)인 진해현은 서북쪽의 진주 방면에서 발원하여 남해로 흘러나가는 진전천(鎭田川)을 끼고 있다. 공민왕 13년(1364) 5월에 경상도도순문사 김속명이 진해현을 쳐들어온 3,000여 명의 왜적을 물리친 기록⁴⁰⁾을 통해 진해현의 입지를 유추할 수 있다. 아마도 진변만호소(鎭邊萬戶所)가 있던 마산만의 합포현을 피해 진해만에 상륙한 왜구가 진전천을 따라 진주 방면으로 진입하려다 실패한 듯하다.

37)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5월 21일.

38) 『동국여지승람』 권32, 창원도호부 산천. 『세종실록지리지』 진주목 칠원현 내용에 여음포가 구산현에 있는 것으로 전하여 본고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였다.

39) 『고려사』 권111, 열전24 계신 홍언박 부 홍사우.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 후대의 『동사강목』 기록에 따르면, 고려시대 삼일포는 조선시대에 마전포(麻田浦)로 불렸다(『동사강목』 권15하, 공민왕 22년 2월).

40)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3년 5월 미상; 『고려사』 권111, 열전24, 계신 김속명.

또한 이른 시기부터 왜구의 침략에 노출되었던 고성현은 원 간섭 초기 일본정벌이 추진 중이던 충렬왕 6년(1280)에 왜구가 고성의 ⑦칠포(漆浦)로 들어와 어부들을 붙잡아 가서 군사를 보내어 (거제도를 비롯한 크고 작은) 섬[海道]을 지키도록 하였다.⁴¹⁾ ⑦칠포는 3세기에 소위 ‘포상팔국(蒲上八國)의 난’을 일으킨 포구 중의 하나로 고성현에 인접한 구산반도에 있던 포구일 것이다.⁴²⁾ 그리고 우왕 4년(1378) 왜구의 금압책(禁壓策)으로 일본 승려 신흥(信弘)이 고성군의 ⑧적전포(赤田浦)에서 왜구와 싸웠다는 기록이 전한다.⁴³⁾

지금까지 언급한 동남해 해안은 마산만과 구산반도에 이어 다시 진동만(鎭東灣)·진해만(鎭海灣)이 펼쳐진 다음, 다시 고성반도가 바다를 향해 길게 늘어섰다. 그곳에서 ⑨견내량(見乃梁)을 건너면 거제도로 연결되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인 거제도가 남쪽 뿐 아니라 동북쪽까지 연결되어 구산반도와 마주하였다. 이로 인해 서쪽의 견내량 해협(海峽)과 동쪽으로 바다에 연결되는 내해(內海)가 형성되어 있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내해를 품고 있는 고성현(固城縣)과 거제현(巨濟縣) 두 고을은 기장·동래·동평·웅신·구산·진해현의 다른 연해 고을과 달리, 진주목 소속으로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主縣)의 지위를 누렸다. 고성현은 속현을 거느리지 않았지만, 거제현의 경우는

41) 『고려사』 권29, 충렬왕 6년 5월 3일.

42) 남재우, 「柒浦國의 성립과 변천」, 『한국상고사학보』 61, 2008, 61~62쪽. 본문 내용에 따르면 칠포가 구산현이나 진해현의 포구일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 고을로 결정할 수 없어, 일단은 위의 註41) 『고려사』 기사 내용을 ‘고성과 칠포’가 아니라 ‘고성의 칠포’로 이해하여 고성현의 포구로 분류하였다.

43)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4년 11월 미상. 고산자 김정호는 적전포를 조선시대의 적진포(積珍浦)로 비정하였다(『대동지지』 권14, 방여총지 고성). 『동국여지승람』 권32, 고성현 산천의 적화도(赤火島)와 고적의 적진향(積珍鄉)이 참고된다. 오랫동안 적진포를 통영시 광도면 적덕리로 비정하다가, 근래에 향토사학계에서 고성군 관내의 동해면 내산리 혹은 거류면 당동리로 보는 견해를 제기하였다(고성문화원, 『이순신의 고성 첫 전투지』 적진포-남촌진, 2014).

아주현(鵝洲縣)·송변현(松邊縣)·명진현(溟珍縣) 세 고을을 속현으로 관할하였다. 고성현과 거제현은 앞선 동남해지역의 다른 고을 보다 해안선이 넓게 뻗어 있어 포구의 개수도 훨씬 많았다. 앞의 <표 1>과 같이 『동국여지승람』의 각 고을 산천조(山川條)에서 확인되는 포구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해양활동도 활발하였다.

문헌자료에서 고려시대 ⑨‘견내량(見乃梁)’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지만, 내륙에서 고성현을 경유하여 거제현으로의 출입은 빈번하였다. 무인정변으로 쫓겨난 의종이 거제도로 유배 갈 적에 건넜다 하여 ‘전하도(殿下渡)’라고 불렀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보다 앞서 인종대에는 거제도 세 고을(명진·송변·아주현)의 해적(海賊) 820명이 투항하여 내륙의 합주 삼기현이나 진주 의령현으로 강제로 이주시켰다.⁴⁴⁾ 이때도 거제도에서 ⑨‘견내량’을 건넌 것이다. 조선 태조 4년(1395)에 연근해 항로의 길목인 견내량에 수군만호를 두었다는 기록⁴⁵⁾에 비춰보면, 고려시대에도 ⑨견내량은 도해(渡海)의 기능 뿐 아니라 해협 주변을 왕래하는 선박을 통제하면서 남해상의 해안 경비를 관할하는 요해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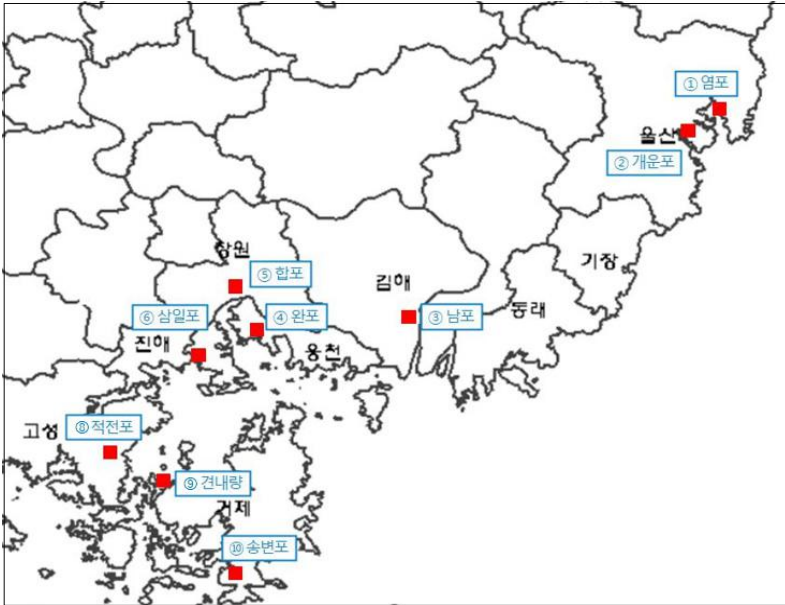
14세기는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이완되어 왜구가 거제도에 거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공민왕대에 거제현이나 남해현(南海縣)에서 귀화한 왜인들이 배신하여 일본으로 돌아갔다거나 왜인들이 거제에 거주하기를 원하였다는 내용⁴⁶⁾을 통해 볼 때에 거제도는 일본인의 왕래 뿐 아니라 상주하는 왜인도 다수 존재하였던 것 같다. 이와 같이 거제도가 일본에서 한반도로 출입하는 포구 중 하나였음은 원종 8년(1267)에 추밀원 부사 송군비와 시어사(侍御史) 김찬(金贊)이 몽고

44) 『고려사절요』 권9, 인종공효대왕 12월 미상.

45) “경상도 견내량(見乃梁) 수군만호 차준(車俊)이 왜적의 배 2척을 잡았다.”(『태조실록』 권7, 태조 4년 3월 9일).

46) 『고려사』 권41, 세가41, 공민왕 18년 7월 9일· 11월 27일.

사신과 함께 일본에서 거제도 ⑩송변포(松邊浦)로 들어온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⁷⁾ 지금까지 언급한 고려시대 경주에서 고성반도-거제도까지의 동남해지역 주요 포구 현황을 아래의 <그림 1>에 표시하였다.⁴⁸⁾



<그림 1> 고려시대 동남해지역의 주요 포구

2. 동남해지역의 해양활동

앞 절에서 살펴본 주요 포구를 통해 동남해지역은 다양한 해양활동

47)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8년 1월 미상. 조선시대에 탐포로 불렸던 고려시대 송변포는 현재의 거제시 남부면 탐포리로 비정된다(전덕재, 『영남지역의 포구』, 『장보고 시대의 포구조사』,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5, 508쪽).

48) 구산반도에 위치한 것으로 이해한 ⑦칠포(漆浦)의 경우는 위치 비정에 여러 논의가 있기에 지도상에 표기하지 않았다.

을 전개하였다. 고려시대 동남해지역 대부분의 고을은 경주 계수관(界首官) 내에 속하였고, 고성현과 거제현(속현 3)만이 진주목의 주현(主縣)이었다. 서남해지역처럼 도서(島嶼)가 광범위하게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바닷길을 통한 지방행정업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군현체제를 바탕으로 편성·운영되었던 조세수납활동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동남해지역의 여러 군현에서 거두어들인 수취물은 13조창 중 하나인 합포 석두창(石頭倉)에 수납되었다가 조운선을 이용하여 개경의 경창(京倉)으로 운반되었다. 앞서 <표 1>에서 동남해지역으로 분류한 고을 중에서 석두창으로 수납한 고을은 울주와 속현 동래현, 양주의 속현 동평현·기장현, 금주와 속현 웅신현·완포현·합포현·구산현으로 총 9개 고을로 추정된다. 나머지 고성현과 거제현(속현 3) 그리고 진해현의 수취물은 사천 통양창(通陽倉)으로 수납하였을 것이다.⁴⁹⁾ 동남해상에는 석두창을 오가는 선박의 왕래가 잦았다. 원종 4년(1263) 4월에 왜구가 금주 관내의 웅신현 물도(勿島)에 쳐들어와서 여러 고을의 공물 수송선[貢船]을 약탈하거나 공민왕대에는 동래와 울주를 침략해 정박 중인 조운선을 탈취하기도 하였다.⁵⁰⁾

고려 말엽의 공양왕대에 왜구의 침탈에 대응하여 방어 성벽을 갖춘 조전성(漕轉城)을 건립하였을 때에 동남해지역에서는 두 곳이 운영되었다. 석두창의 전통을 계승한 마산창(馬山倉)과 함께 김해의 불암창(佛巖倉)이 새로운 조운 중심지로 기능하였다.⁵¹⁾ 이렇게 고려왕조와 조선 건국 이후까지 동남해의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지던 조운활동은 태종

49) 한정훈, 앞의 논문, 2004, 42~43쪽. 완포향과 성법부곡이 승격한 완포현과 구산현도 석두창의 수납 고을에 포함시켰다.

50) 『고려사』 권25, 세가25 원종 4년 2월 23일; 권39, 공민왕 10년 8월 15일.

51) 조선 초기 경상도 조세 수납처로 김해 불암창, 창원 마산창, 사천 통양창이 있다(『경상도지리지』 서문).

3년(1403) 5월 경상도 조운선 34척이 침몰한 충격적인 파선(破船) 사고를 계기로 중단되었다.⁵²⁾ 이에 따라 동남해지역의 조운활동은 낙동강 수운을 통한 강운(江運)으로 전환되었다. 낙동강변의 성저강창(城底江倉; 김해)·황산강(黃山江; 양산)·이창(耳倉; 밀양) 등의 재선처(載船處)⁵³⁾를 통한 강운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한참 뒤에 마산창(馬山倉) 등이 설치되는 1760년대까지 동남해지역에서 바닷길을 통한 조운활동은 사라졌다.

고려시대 해운(海運)이든 조선 초기 강운(江運) 활동이든 낙동강 하구에 자리하였던 금주(金州) 지역은 항운(航運) 활동의 중심지였다. 특히 원간섭기 이전의 13세기 중반까지 이곳에 있던 동남해도부서와 객관(客館)을 통한 대일 교류활동은 매우 활발하였다. 동남해도부서는 본영이 경주와 금주를 오가며 존속하였다.⁵⁴⁾ 선병도부서(船兵都部署)로도 불린 도부서는 고려 전기에 양계(兩界)와 동해·남해 해상의 경비 및 방어, 그리고 내왕외인(來往外人) 및 외선(外船)의 조치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 군사기구였다. 동계(東界)의 진명(鎭溟)·원흥진(元興鎭)과 북계(北界)의 통주(通州)·압강(鴨江) 그리고 동남해(東南海) 도부서 다섯 곳이 확인된다.

동남해도부서는 늦어도 문종 32년(1078)에 대일(對日) 군사 및 외교·통상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주에서 금주(=김해)로 옮겨 왔다. 김해에 있었던 시기는 ①문종 32년(1078)~명종 20년(1190), ②신종 5년(1202)~충렬왕 19년(1293), ③공민왕 17년(1368)~우왕 4년(1378)으로 총 213년이였다.⁵⁵⁾ 금주에 있던 동남해도부서는 위와 같은 해상방위 사령부와 같은 군정(軍政) 업무 이외에 대일(對日) 외교 및 통상 업무에 관

52)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5월 5일.

53) 『경상도지리지』 서문.

54) 앞의 주 14) 참고.

55) 구산우, 「고려시기 김해의 지방행정구조」, 『한국중세사연구』 54, 2018, 77~78쪽.

여하였다. 즉 일본으로부터의 방물진공(方物進貢)과 표류민 호송을 위한 사신의 응대 등 국가 간의 공식적인 교섭을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대일 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본영의 소재지가 경주에서 김해로 옮겨 온 것이다. 동남해도부서는 대마도 혹은 일기도를 통한 토산물의 헌납에 관여하여 바닷길을 통한 개경으로의 이송에 필요한 도선(導船) 업무나, 혹은 고려와 일본 해역에서 표류한 양국인의 송환 및 압송 업무에도 관할하였다.

이처럼 경주와 김해를 오가면서 존속한 동남해도부서는 동남해 지역민을 엮을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었다. 경주와 김해 주변의 연해 지역민들은 도부서 운영에 필요한 군역(軍役)을 비롯한 요역(徭役) 뿐만 아니라, 군사령부이자 대일 외교를 전담한 국가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물자 제공에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도부서의 운영과 해상활동에 동남해 지역민과 물자가 동원되었고, 그곳을 통해 왕래하던 일본에 대한 인식과 정보도 동남해지역 안에서 공유하였다.

금주에는 동남해도부서와 함께 고려로 들어오는 일본 사신단과 상인들을 접대하는 객관(客館)도 위치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문종 초기에 금주가 대일교류 창구로 주목되면서 사신과 상인을 맞이할 시설인 객관이 건립되었고, 운영과 관리는 지방관 보다는 위에 언급한 동남해도부서를 통해 이루어졌다.⁵⁶⁾ 객관의 위치에 관해서는 『동국여지승람』에 전하는 김해도호부 명월산 아래 견조암(見助巖) 수참(水站)에서 왜사(倭使)를 접대하였다는 기록⁵⁷⁾을 근거로 현재의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구랑마을로 보고 있다. 금주객관은 11세기 중반 문종대 초기부터 일본과 외교·통상의 유일한 창구로 활용되다가 13세기 초·중반 왜구의 동남해지역 약탈,⁵⁸⁾ 그리고 13세기 중·후반에 몽골의 대일(對日) 정책과

56) 이종봉, 앞의 논문, 2004b, 108~110쪽.

57) 『동국여지승람』 권32, 김해도호부 산천.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 등의 정세 변화 속에서 폐쇄되기까지 200년 가까이 존속하였다. 13세기 후반부터 왜구의 약탈이 극심하던 14세기 중 후반까지 금주의 객관을 통한 한·일 양국의 교류활동은 중단되었다. 이후 고려말·조선초기에 일본과 왜구의 금압책에 관한 논의를 통해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이전의 전통을 되살려 김해 객사(客舍)에 왜인들이 다시 왕래하게 되었다. 태종 14년(1414)에 김해부 객사(客舍)에서 왜인 10여 명을 접대하였다는 기록⁵⁹⁾을 참고하면, 명월산 아래의 수참(水站)에 자리하였던 객관은 조선 전기 어느 시점까지 대일 교류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주에 있던 동남해도부서와 금주객관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고려와 왜(倭)의 교류 관계는 13세기 후반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로 인해 완전한 파국에 이르렀다. 이때까지 금주가 대일 외교·통상업무를 위한 출입구였다면, 그 이후로는 함포현이 일본정벌과 왜구 격퇴의 전초기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함포현의 포구는 먼 바다의 파도에 영향을 덜 받는 만(灣) 깊숙한 곳에 자리한 천혜의 양항(良港)으로 석두창(石頭倉)을 통한 수륙교통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었고, 일본과의 직선 거리도 짧아 1·2차 일본정벌을 위한 출항 기지로 낙점되었다. 비록 원정군이 성공하지 못한 채 인명과 물자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돌아왔지만, 장기간 일본 원정을 준비하면서 함포현은 군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전함 건조 및 수리 등의 군수산업이 발달하였고 군량 등의

58) 고종 10년(1223)에 왜구가 금주를 노략질한 사건(『고려사』 권22, 세가22 고종 10년 5월 22일)이 금주 객관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이종봉, 앞의 논문, 2004b, 89쪽).

59)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8월 29일. 해당 기록에서 말하는 김해부 객사의 위치로 웅신현의 내리포를 배제할 수 없지만, 최근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태종대에 명월산 아래 건조암 수참(水站)에서 왜객(倭客)의 접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였다(심민정, 『조선 전기 낙동강 유역 水站에서 보이는 倭館의 성격』,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6, 2017, 24~27쪽).

군수(軍需)가 물려들면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었다.⁶⁰⁾

2차 일본정벌 이듬해인 충렬왕 8년(1282)에 합포현은 동정(東征)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원현(會原縣)으로 고치고 현령이 파견되었다.⁶¹⁾ 이와 함께 동정의 여파로 왜구의 침입 등 불안한 동남해지역의 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군사기구인 진변만호부(鎭邊萬戶府)를 회원현에 설치하였다. 당시 회원현에 주둔하던 원나라 병력이 만호부의 주력 부대였지만, 충렬왕 13년(1287)에 원나라 병력이 철수하면서 고려군이 주축이 되었고, 충렬왕 19년(1293)에는 합포등처(合浦等處) 진변만호부로 개칭하였다. 이렇게 합포에 설치되었던 진변만호부는 원간섭기 왕경·서경·탐라·전라도에 설치된 5개의 만호부(萬戶府) 중 하나로 경상도의 해안가를 지키는 중심 군영[만호부]의 지위를 지녔다. 충렬왕 28년(1302)에 원의 중서성(中書省)에 보고된 상서문⁶²⁾을 통해 진변만호부가 자리한 합포를 중심에 두고 동쪽의 가덕(加德)·동래·울주와 서쪽의 죽림(竹林; 고성현 동 40리)·거제에서 왜구의 동향을 살피는 해상 경비 활동이 전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공민왕 5년(1356)에는 합포진변만호부 휘하에 군사도 없이 권위만 내세워 평민들에게 횡포만 일삼는 등 기능이 유명무실해져 결국에는 다른 만호부와 함께 혁파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는 사이에 합포현은 왜구 약탈의 주요한 목표지점으로 전락하였다. 고을별 왜구의 침입 횟수를 정리한 연구에 따르면, 합포 13회를 비롯하여 울주 12회, 고성 10회, 금주와 양주(梁州) 각각 8회로 동남해지역이 단연 왜구 피해의 최일선에 노출되었다.⁶³⁾ 합포지역을 침입한 왜구는 합포 병영(兵營)이나

60) 김광철, 앞의 논문, 2004.

61) 『고려사』 권57, 지리2 경상도 금주 합포현.

62) 『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28년 미상. 해당 기사에서 서쪽으로 진주 임내의 각산(角山)·순천의 내례량(內禮梁)이 요해처로 거론되고 있다.

63) 박종기, 「고려 말 왜구와 지방사회」, 『한국중세사연구』 24, 2008, 178~179쪽.

병선을 불사르고, 회원창(會原倉)의 미곡을 빼앗아갔다. 아마도 합포현은 대일(對日) 군사기지인 만호영(萬戶營)과 조창(漕倉)인 석두창이 있어 인구와 물산이 풍부하였기에 약탈의 주요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공민왕 23년(1374) 4월에 왜구의 배 350척이 합포를 침범하여 사졸 5,000여 명을 죽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도순문사 김형(金鉉)의 탐학과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조림(趙琳)을 파견하여 그의 목을 베고 팔다리를 찢어 여러 도(道)에 돌리게 하였다.⁶⁴⁾ 당시 합포에 침입한 왜구의 규모가 350척이라는 대규모 선단인 점, 그리고 5천여 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1374년 왜구의 합포 침공은 왜구로 인한 최대의 피해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왜구가 대규모의 병력을 꾸려 합포를 침공한 것은 이곳이 일본 원정 이래로 전통적인 군사기지가 설치된 왜구 방어 of 최전선으로 다수의 정예군이 주둔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형 등의 고려 지휘관이 무능하고 방심하여 큰 인명 피해를 당하였기에 조정에서는 가혹한 형벌로 지휘관의 책임을 물어 향후 방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도하였다. 하지만 우왕 2년(1376)에 또다시 왜구가 합포 만호영(萬戶營)을 침공하고, 인접한 회원현(會原縣)·의창현(義昌縣) 뿐 아니라 낙동강 너머의 양주(梁州)·동평현·동래현·기장현·울주와 회원현 서쪽의 함안현·진해현·고성현·반성현(班城縣) 등지도 도륙하고 불살랐다.⁶⁵⁾ 이처럼 왜구가 마산만을 통해 진입하여 만호영의 본진을 타격한 뒤에 동남해지역의 여러 고을을 약탈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다.

우왕대에 들어서 방왜(防倭)의 임무는 새로이 설치된 왜인추포만호(倭人追捕萬戶)와 수군조직의 재편을 통해 우왕 13년(1387)부터 설치

64) 『고려사』 권44, 공민왕 23년 4월 임자.

65) 앞의 주 19) 참고. 우왕 3년(1377)에도 김해와 의창(義昌)에 왜선 130척이 침략하였다(『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3년 11월 미상).

되기 시작한 수군만호부(水軍萬戶府)로 계승되었다. 하지만 이들 군사 기구를 통해 왜구 방어에 실효적 성과를 거둔 지역은 양광도와 전라도였다. 이에 반해 왜구가 너무 많아서 적의 소굴이 되어버린 경상도에서는 왜구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⁶⁶⁾

이상의 내용과 같이, 고려시대 동남해지역의 해양활동은 주로 낙동강 하구의 금주와 마산만의 합포현(=회원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조창제(漕倉制)가 운영되던 13세기까지 합포현의 석두창을 중심으로 연근해 해운활동이 이루어졌다. 11세기 중반의 문종대에 이르러 대일 외교·통상업무가 증가하면서 고려왕조 유일한 대일(對日) 창구로 금주 객관이 설치되었고, 이어서 경주에 있던 동남해도부서가 금주로 옮겨와 13세기 후반까지 200년 가까이 존속하였다. 동남해도부서는 해상방위 사령부로서 본연의 기본적인 임무 이외에 일본의 토산물 헌납, 사신 응대, 양국의 표류민 송환 업무 등에도 관여하였다. 금주 객관을 통해 유지되던 고려와 왜의 우호관계는 13세기 후반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로 인해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일본 정벌을 준비·실행하면서 합포현은 군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동정(東征) 이후에는 회원현으로 승격하여 현령이 파견되었고, 동남해의 지역 안보 태세 확립을 위해 진변만호부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금주에 이어 합포현이 동남해지역 해양활동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지만, 1350년 경인년을 기점으로 동남해지역을 대규모로 침공한 왜구를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왜구 방어에 최전선이었던 진변만호부가 있던 합포현은 왜구의 집중적인 침공을 받아 큰 피해를 당하였다.

66) “왜구가 너무 많아서 경상도가 적의 소굴이 되어버리니 주군(州郡)은 소란스러워지고 민(民)은 모두 산골짜기로 달아나 숨었다.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아 장수들은 왜구를 장난스럽게 여기고 바라보기만 하면서 싸우지 않으니 적의 기세가 날이 높아졌다.”(『고려사』 권118, 열전31 제신 조준).

IV. 신라~조선 초기 동남해지역 중심 포구의 이동

고려말·조선 초기 최고의 난제였던 왜구 문제는 태조·태종대 왜구 금압(禁壓) 조치가 효과를 거두면서 조금씩 해결의 기미를 보였다. 이로 인해 동남해지역에서 양국의 교류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1392년 7월 조선왕조 개창에 이어 10월에 일본에서 최초로 사절을 보내어 잡혀갔던 우리 백성을 송환하면서 양국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청하였다.⁶⁷⁾ 태종 4년(1404) 7월에는 일본에서 사신이 찾아와 토산물을 바치거나 조선의 왜구 금압책에 협조하였다.⁶⁸⁾ 이러한 관계를 통해 양국 교류의 횟수가 조금씩 늘어남에 따라 앞서 언급했듯이, 태종 2년(1402) 1월에 왜구가 동평현의 부산포(富山浦)에 들어와 천호(千戶) 김남보(金南寶)와 사졸(士卒) 10여명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⁶⁹⁾ 이러한 충돌은 양국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왜구가 수군진영에 쳐들어와 지휘관을 살해한 사건은 여말선초시기 부산포 일대 왜구의 출입과 영향력을 전제할 때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태조와 태종대 양국간 혼풍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경상도에 머무는 일본인이 거의 2천명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또다시 이들을 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⁷⁰⁾

태종 7년(1407) 기록⁷¹⁾에서 확인되는 최초의 통제책은 동남해지역 또 다른 포구의 부상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간략히 정리하면, 이전까지 흥리왜선(興利倭船)이 (동남해지역의) 여러 포구에 정박하여

67) 『태조실록』 권2, 태조 1년 10월 19일.

68) 『태종실록』 권8, 태종 4년 7월 30일.

69) 앞의 주 32) 참고.

70) 태조·태종대 경상도의 부산포와 내이포를 중심으로 한 한일관계사의 기본적 흐름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김동철, 『15세기 부산포왜관에서 한일 양국민의 교류와 생활』, 『지역과 역사』 22, 2008, 27~36쪽).

71)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7월 27일.

병선의 동향을 엿보는 등 국가 기밀의 누설과 같은 여러 폐단이 발생하므로 지금부터는 일본 선박이 경상우도 수군도만호(水軍都萬戶)가 설치된 김해의 내이포(乃而浦)와 경상좌도 수군도만호가 있는 동래현의 부산포(富山浦) 2곳에만 정박하여 교역하도록 포구를 지정하였다. 13세기 후반 금주객관이 폐쇄된 이후, 왜인들이 끊임없이 요구한 새로운 교역장을 이때에 이르러 군사적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수군 본영(本營)이 있던 내이포와 부산포를 공식적으로 개항(開港)하여 왜관(倭館)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들 두 포구에 조선시대 최초의 왜관이 왜 설치되었는가에 관해서는 해양 환경적 요인에서부터 왜인들의 요구와 선택이라는 가설까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해당 기록에 따르면, 조선 정부가 왜인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 왜인을 위한 통상 교역처를 개설하였음은 명확하다. 그곳으로 낙점된 곳이 바로 부산포와 내이포인 것이다.

이렇게 수군의 본영이 있던 포구를 개항장으로 선택한 것은 고려시대 금주에 동남해도부서와 객관이 함께 자리한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⁷²⁾ 태종 7년 공식적인 개항으로 부산포에 출입하는 왜선의 규모는 커지고 횡수도 빈번해졌다. 태종 12년(1412)에 부산포에 정박한 왜선 17척이 흥리(興利)를 구실로 삼고 있지만 여전히 두렵다는 관찰사의 보고가 있었던 것을 보면,⁷³⁾ 여전히 왜구의 소란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면서도 태종 18년(1418)에는 염포(鹽浦)와 가배량(加背梁)에 왜관이 추가 설치되었다. 이듬해 세종 원년(1419) 대마도 정벌로 양국의 통교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세종 8년(1426)에 다시 부산포·제포·염포의 삼포(三浦)를 개항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변화를

72) 엄밀히 말하면 차이는 존재한다. 고려시대 금주는 교역장인 객관이 먼저 설치된 이후에 경주에 있던 군영이 옮겨 온 것인데 반해, 조선시대의 부산(포)은 수군 본영이 있던 곳에 교역장이 개설되었다.

73)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8월 9일.

거쳐 명종 2년(1547)에 부산포만을 단일하게 개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조선 전기 왜관의 개설과 변천에 관해서는 이미 풍부한 논의와 성과가 있기에 더 이상의 언급은 생략한다.

조선 태종 7년(1407)에 개항한 부산포와 내이포는 동남해지역 중심 포구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포구가 부상하는 역사적 배경은 고려 말엽 왜구를 방어하기 위한 동남해지역의 수군 진영 설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양사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기 위해 앞서 Ⅲ장에서 부산지역이 포함된 동남해지역의 포구와 해양활동에 관해 살펴보았다. Ⅲ장의 내용과 같이, 고려시대 동남해지역은 서남해지역과는 다른 해양사의 전개 양상을 띠었다. 동남해지역의 중심 포구는 멀리 않은 곳에 위치한 일본과의 외교·통상활동을 위한 출입구 역할을 담당하였다. 남포(南浦) 등의 포구가 있던 금주와 합포(合浦)가 있던 13세기 후반의 회원현은 중세 해양도시적 면모를 띠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동남해지역의 포구와 해양활동에 관한 내용을 신라시대로 연결하면, 통시대적인 중심 포구의 변천 양상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신라는 Ⅲ장 1절에서 고려시대 주요 포구로 언급한 태화강변의 ①울포를 3세기 후반에 이미 확보하여 외항(外港)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인근에 굴혈역(屈歇驛)을 설치하여 왕래하는 인사를 접대하고 출입국 절차와 같은 공식적인 행정업무를 진행하였다. 이뿐 아니라 울포에서 외교교섭이나 대외교역과 같은 대외적 기능을 수행하였다.⁷⁴⁾

고려시대 동남해지역의 중심 포구에 관해서는 앞의 Ⅲ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11세기 중반 문종대부터 금주객관을 통한 일본과의 외교·통상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11세기 후반에 경주에 있던 동남해도부서가 금주로 옮겨와 동남해의 안보 태세를 강화하였다. 그로부터 200여

74) 김창석, 앞의 논문, 2015, 16~18쪽.

년 뒤의 13세기 후반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경색되어 외교·통상활동이 중단되었고, 14세기에는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는 것이 동남해지역의 최대 현안이 되었다. 그러한 불안한 정세 속에서 합포진변만호부가 설치된 회원현이 동남해 수군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14세기 중반 이래로 시간이 갈수록 상인 보다는 해적(海賊)에 가까웠던 왜구가 조선 개창을 즈음한 시기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다시 상인의 속성을 띠면서 ‘홍리왜인’이라는 이름으로 동남해지역을 출입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태종 7년(1407)에 수군도만호(水軍都萬戶)가 설치되어 있어 왜인의 통제가 용이하였던 부산포와 내이포를 개항하였다. 이후 16세기 중엽의 명종 2년(1547)에 부산포가 대일(對日)의 단일 개항장으로 지정되면서 동남해지역의 중심 포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신라~조선 초기 동남해지역의 중심 포구와 고을은 신라시대 ①울포의 울주를 거쳐, 고려시대에는 11세기 중반 ③남포의 금주에서 13세기 후반 ⑤합포의 회원현으로 그리고 조선 초기는 부산포의 동래현이었다. 오늘날의 울산-김해-창원(옛 마산)-부산으로 이동하였다.

V. 맺음말

본 논문은 600여 년 전에 개항하여 국제 교역항으로 위상이 높은 부산포의 역사성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하였다. 고려시대사 전공자로서 위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본문 II장에서 ‘동남해지역의 해양사’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시론적 차원에서 제안한 ‘동남해지역 해양사’라는 연구 범위와 시각은

향후 부산을 포함한 동남해 연안의 지방사나 해양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Ⅲ장은 신라·조선시대 보다 훨씬 활발히 전개되었던 고려시대 동남해지역의 해양사에 관해 개관하였다. 다소 장황하게 서술한 이유는 지금까지 제대로 정리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Ⅲ장 1절에서 관련 자료를 근거로 고려시대 동남해지역의 범위를 경주로부터 울산·부산·김해·창원·고성 그리고 거제로 제한하였다. 고려시대 해당 권역에 분포하였던 10개의 포구를 찾아내었다. 주요 포구로 신라 이래로 고려 말엽까지 존재가 확인되는 울주의 ①울포, 대일 교역의 중심 고을인 금주의 ③남포 그리고 석두창·일본원정 출항지·진변만호부가 설치되었던 합포현의 ⑤합포(合浦) 등을 꼽을 수 있다. 마산만 이서(以西)의 구산반도·진해만·고성반도·거제도도 둘러싸인 내해(內海)에 고려·왜의 교류 관계가 확인되는 포구가 다수 확인되는 것도 특징적이다. 2절에서 살펴본 동남해지역의 해양활동은 연근해의 항운(航運)활동을 제외하면, 금주객관·동남해도부서·일본 원정·진변만호부 그리고 왜구의 방어 등에서 짐작되듯이 대일(對日) 교류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Ⅲ장 고려시대 동남해지역 해양사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IV장에서는 신라~조선 초기 동남해지역의 중심 고을과 포구의 변천 양상을 언급하였다. 신라시대 울주의 ①울포, 고려 전기 금주의 ③남포와 원간섭기 회원현의 ⑤합포에 이어 조선 초기에 동래현의 부산포가 중심 포구였다. 이렇듯 조선 초기 부산포의 개항을 한국 고·중세시기 동남해지역 중심 포구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고려시대 부산지역 포구의 존재나 해양활동 양상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자료를 찾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조선 초기에 개항한 부산포를 동남해지역 해양사라는 확대된 공간에서, 또한 신라~조선 초기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중심 포구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

- 김현철 외, 3, 『울산 반구동유적』,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09.
- 박종기, 「고려 말 왜구와 지방사회」, 『한국중세사연구』 24, 2008.
- 심민정, 「조선 전기 낙동강 유역 水站에서 보이는 倭館의 성격」,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6, 2017.
- 이종봉, 「高麗時代 對日 交流와 釜山」, 『지역과 역사』 15, 2004.
- _____, 「조선전기 薺浦의 왜인과 활동」, 『지역과 역사』 22, 2008.
- 한정훈, 「고려시대 연안항로에 관한 기초적 연구」, 『역사와 경계』 77, 2010.
- _____, 「고려시대 漕運制와 마산 石頭倉」, 『한국중세사연구』 17, 2004.
- 홍연진, 「부산사 연구현황」, 『항도부산』 10, 1993.

투고일 : 2021. 05. 24. 심사완료일 : 2021. 06. 23. 게재 확정일 : 2021. 07. 07.
--

| Abstract |

Sea History of the Southeast Coast and Movement of the
Central Port during the Goryeo Dynasty
- In connection with the Opening of the Port of
Busanpo(釜山浦) in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Han, Jeong-Hu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background for the opening of Busan Port along with Naeipo in the 7th year of King Taejong's reign (1407) during the Joseon Dynas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ports in the southeast coast and marine activities during the Goryeo Dynasty from the 'sea history of the southeast coast' perspective, including the Busan area. The southeast coast region during the Goryeo Dynasty was the central district for foreign policies and trading activities toward Japan, and the center was Gimhae where Nampo was located and Masan where Hapso was located.

To go back to the Silla Dynasty to examine the aspects of changes in the central ports in the southeast coastal region, foreign negotiation was made in Yulpo in the Taehwa riverside in Ulju. Next, in the first half and the middle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Geumju where the Southeast Sea and Islands Division and guest houses were located supervised foreign policies and trade affairs toward Japan. After the Yuan intervention period in the late 13th century, Hoewon-hyeon where the defensive work against Japanese invasion, Jinbyeon Manho-bu in Hapso was located was the center base of naval forces' activities in the southeast coast. Also, after the opening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7th year of King Taejong's reign, Naeipo and Busan

Port were opened for Heungri-woein (Japanese Traders), and in the mid-16th century, the single Waegwan period was opened in Busan Port.

As above, between the Silla Dynasty and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the central counties and ports in the southeast coast region moved from Ulju (Yulpo) through Geumju (Nampo) and Hoewon-hyeon (Happo) to Dongnae-hyeon (Busanpo), respectively, Ulsan, Gimhae, Changwon (Former Masan) and Busan toda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opening of Busan Port in changes in the central ports in the southeast coast Sea history.

Key Words : The southeast coast Sea history, Geumju, Southeast Sea and Islands Division, Happo, Busan-port

